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3호 [투계 제2753호]

주제 112
(2023)년 6월
3일
토요일
음력 4월 15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밝게 웃는 조선의 행복동이들

이 땅, 이 하늘아래 아이들의 명량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에 겨운 모습에서 사람들은 공화국의 밝고 창창한 미래를 그려본다. 공화국의 가는 곳마다에서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가.

후대들을 위하여!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세계가 이 부름에 비껴갔다.

되새겨보면 이 땅에는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후대사랑의 전설들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 후대사랑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해방후 북조선선진인민위원회 첫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상정시키셨고 온 나라가 불바다에 잠긴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학생소년들이 학습과 조직생활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도처에 유자녀학원을 세우시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랑랑히 울려 퍼지도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 제일먼저 학교와 학생소년단, 학생소년회관과 소년단야영소부터 세워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10년은 더 젊어진다고 하시며 해마다 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에 참석하시었으며 만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생신날에도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이 보고싶어서 학교를 찾으신 것을 비롯하여 국가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헌신의 로고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저 하늘처럼 끝이 없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은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으로 간주하여온 아이들의 벗이었고 스승이었다. 하지만 새세대들을 나라와 민족의 미래로 보시고 한평생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 같은 분이 어디에 또 계셨던가.

조국과 인민, 후대들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후대사랑의 력사는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졌다.

학생소년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조국과 민족의 미래인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피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온 나라가 허리를 졸라박아 했던 시련의 시기에도 해빛같은 교정들에서는 배움의 글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경치아름다운 조국의 명승지들에서는 야영의 기쁨이 창공높이 휘날리는 격동적인 화폭이 펼쳐질 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길에서 인민군인들이 마련한 동식물표본들을 보여주시고 교육부문에 보내주도록 하시었으며 영웅강계장사산제1중학교와 삼지연군부부중학교(당시)를 찾으신 고 수업관람을 하신 감동깊은 사실들은 력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져 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기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절세의 위인의 이 위대한 인생관에도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참된 삶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이 뜨겁게 어 려었다.

진정 한평생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 계시며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사업에 억만금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자애로운 아버지로 모시었기에 이 나라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라 궁지높이 노래하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동이로, 조국의 앞날을 태어나면 개승자들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었다.

우리는 태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태원수님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이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한다시며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아버지사랑을 부여주시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역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불같은 진정으로 미래를 꽃피우시는 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혁명의 본질도, 목적도, 결과도 후대들의 성장과 행복에서 찾으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강고리 바쳐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가고 계신다.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은 지금 10여년 렁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화폭들을 소중히 되새겨보고 있다.

주제101(2012)년 5월 신문과 방송, TV를 통하여 조선소년단창립 66돌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축전으로 경축하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세계가 깜짝 놀랐다.

적인 경축행사를 한 레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다는 알 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중시, 후대사랑의 뜻에 의해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열린 소년단원들의 경축행사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새겨졌는지.

그때를 회상하며 민용항공부문의 중요한 직책에서 사임한 한 일군은 후날 이런 글을 썼다.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비행기에서 내리는 소년단원들, 뜨겁게 마중하는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선발차의 안내를 받으며 시대를 향하여 달리는 수습대의 배스들... 참으로 세상에 부럼없는 이 나라 왕들의 행차였다. ...》
하늘에 비행기가 날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수천명이나 되는 평

범한 노동자, 농민의 지식들을 위해 려객기들이 날았다 는 사실은 아직 어디에도 기록된 것이 없다. 더우기 한 나라의 령도자가 아이들을 위해 비행조종으로부터 비행장의 날씨와 비행기의 안전상태까지 알아보고 마음쓰시었다 는 이야기는 어느 위인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조국의 오늘을 추동하고 래일을 앞당겨오는 힘이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간직되어있는 후대관, 미래관이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오성산의 까칠봉전초가에도, 위험천만한 화산에도 서슴없이 나서신분, 아이들의 랑랑한 노래소리를 들으시며 온갖 피로가 가셔지신듯 환히 웃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바다 한복판 섬초소를 찾으시 여서도 아이들을 먼저 품에 안아주시는 인민의 령도자,

소년단창립절을 크게 쇠는 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고 조선소년단창립 경축행사와 조선소년단대회들에도 몸소 참석하시어 축하도 해주신분, 소년단원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나란히 앉아 음악회도 관람하시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함께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인 소년단원들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부르시어 사랑의 환포에 안아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온 나라 학생소년들이 반아안고있는 교복과 《소나무》책가방, 《민들레》학습장과 《해바라기》학습포에 어려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세계는 또 얼마나 감동깊은 것인가.

지금도 사람들은 잊을 수 없어 외우고 또 외운다.

지난해 총포성명은 방역전쟁으로 일각일초가 더없이 긴장하게 흐르던 그 나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줄에 지니시고 인민사수의 최전방에서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하고 로고에 로고를 바쳐가 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기갯가루, 암가루공급문제까지 세심히 관심해주신 사랑의 이야기였다.

혁명의 전도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새세대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있다는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이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받으시고 사랑과 정을 담아 한자한자 친필로 써보내주신다.

하기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경상유치원과 평양유치원, 에육원을 찾으시어 넓으신 환포에 안아주시었던 귀여운 어린이들과 조선소년단창립 68돌이 되는 뜻깊은 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우고 기념사진을 찍은 만경대

혁명학원의 원아들, 등산간 아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며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원수님을 따라서며 노래 《불라는 소년》을 불렀던 학생소년들과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경애하는 그이께 축주경기모습을 보여드렸던 소년축주선수들,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 경축연회에도 참가하였던 소년단원들, 아니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과 학생소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고있는 것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구호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라!》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를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지만 있다면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후대들이 걸어갈 길 위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시며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이 땅에서는 아이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라!》의 노래가 더욱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그렇다. 절세 위인의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이 나라의 아이들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동이로,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 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6.1 국제 아동절 73돌 기념 친선련환모임 진행

6.1국제아동절 73돌기념 친선련환모임이 1일 대성산유원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성학 내각부총리,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희태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판계부민 일꾼들, 평양시안의 유치원어린이들, 교양원들, 녀성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주제 외교대표들, 대표부 성원들, 녀성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6.1국제아동절을 맞는 우리 어린이들과 모임에 참가한 여러 나라 손님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아이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어린이들처럼 행복한 아이들은 세상에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사로운 품이 있어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밝고 명량하게 자라며 그들의 고운 꿈과 희망은 더 활짝 꽃피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6월의 하늘가에 아동가요들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어린이들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무럭무럭 자라는 자기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출동작과 민속놀이들에 담아 펼쳐보였다.

이어 체육유희오락경기가 있었다. 룡구루에 공넣기, 군사놀이 등의 경기들에 출전한 꼬마선수들이 승벽을 부리는 귀여운 모습은 관중들에게 명절의 기쁨과 랑만을 더해주었다.

지혜를 겨루는 집짓기경기와 음악놀이, 바늘당기기 등은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자아냈다. 우리 어린이들이 벌리는 재미있는 유희오락경기에 여러 나라 외국 손님들도 한데 어울려 련환모임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경기가 끝난 후 어린이들은 원무를 펼치고 유희시설도 리용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이날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들에서도 국제아동절에 즈음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본사기자